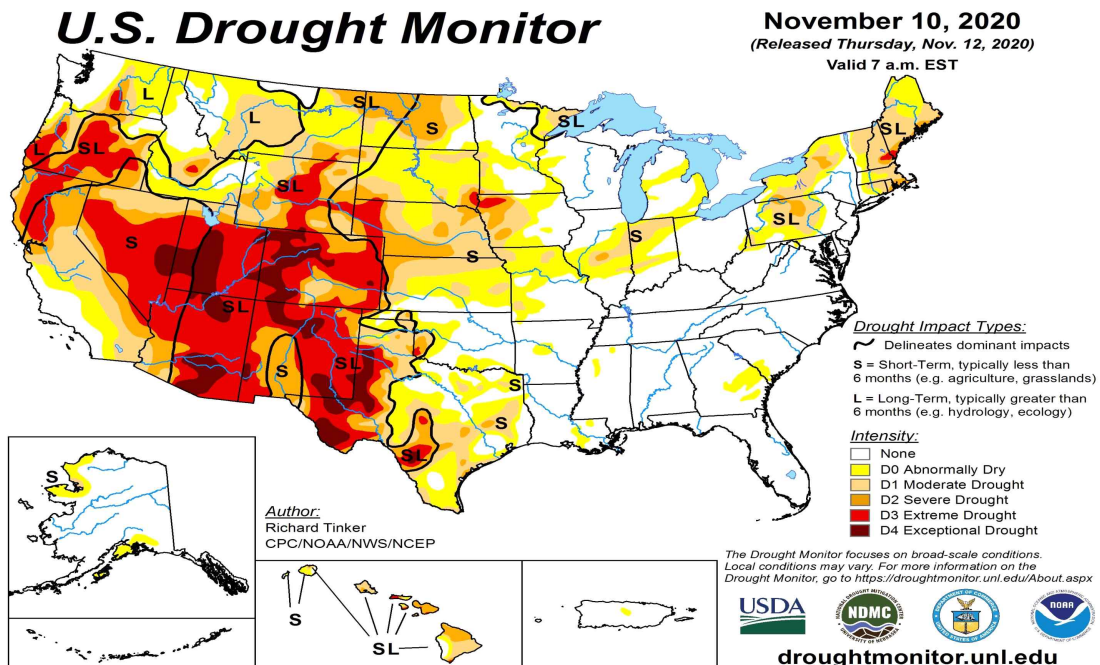


11월 1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46)

□ 미국 기후 현황(11/8~11/14)

열대 폭풍 에타와 한 한랭 전선 사이에 일어난 상호작용으로 대서양 중부 및 남부 지역에 걸쳐서 폭우가 내렸다. 버지니아와 남북 캐롤리나 주(州)들에 내린 호우가 이전의 늦철 허리케인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강 유역들에서 보통 수준의 또는 큰 홍수를 촉발하는데 열대와 관련된 연결 하나로 충분했다. 한편, 에타는 플로리아에 두 번 즉, 첫째는 11월 8일 오후 11시경 (동부 표준시) 로우어 마티쿰 키에 그리고 둘째는 11월 12일 오후 4시 세다 키 근처의 멕시코 만에 상륙했다. 지속 풍속은 각각 시속 65 및 50 마일이었다. 플로리다 반도에서 지역적으로 시속 50 마일을 넘는 돌풍만 제외하면, 에타의 주요 영향은 폭우로 인한 돌발 홍수였다. 에타는 플로리다 남동부에서 6~18 인치 그리고 탐파 베이 부근에서는 6~10 인치 정도의 비를 내렸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아래쪽 미시시피 계곡까지 남부의 나머지 지역에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다른 곳에서는 중서부에서 강수 (비와 눈) 기간이 늦철 야외 작업을 늦추었고 태평양 북서부에서 고평원 북부까지 폭풍우성 날씨가 발달했다. 북서부에서는 강수가 가뭄을 조금 완화했고 겨울 밀에게 유익했다. 주간이 지나면서 역사적이면서 기록적인 11월 온기가 동쪽으로 이동하여 남부와 동부의 많은 곳에서 주간 기온을 평년 대비 최소 10~15° F 올렸다. 주 중간 및 후반기 동안 평원과 중서부를 가로질러 현저하게 더 서늘한 공기가 유입되었고 서부는 쌀쌀한 날씨가 우세했다. 평년에 비해서 가장 추웠던 날씨 얼마가 몬태나에서 발생했던 중에 대부분의 미국 서부에서는 평균 수치가 평년보다 5~15° F 낮았다.



□ 농업 현황 요약 (11/9~11/15)

미국 서쪽 절반의 많은 부분에서 평년보다 5° F 이상 낮은 기온이 기록되었다. 몬태나 일부와 로키 산맥의 일부 위치에서는 평년보다 10° F 이상 낮은 기온이 기록되었다. 대조적으로 전국 동쪽 절반에서는 평년 이상의 기온이 우세했다. 대서양 중부, 미시시피 계곡, 뉴 잉글랜드 및 텍사스 동부의 일부 지역은 평년보다 10° 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캘리포니아, 미시시피 계곡, 뉴 잉글랜드, 남서부 및 텍사스의 대부분은 평년보다 건조한 상태를 유지했으나 대서양 중부, 오대호, 태평양 북서부, 평원 중부, 로키 산맥 북부 및 남동부의 대부분에는 평년 이상의 강우가 기록되었다. 대서양 중부, 플로리다 남부 및 태평양 북서부에 있는 포켓에는 총 6인치 이상의 주간 강우가 내렸다.

□ 세계 기후 현황(11/8~11/14)

■ 유럽: 대륙의 많은 곳에 햇볕이 잘 드는 온화한 조건이 정착한 이후에 서부의 재배 지역에 다시 늦은 주 소나기가 내렸다. 장기간의 불안정한 날씨가 지나간 후에 프랑스 중부에서 동쪽으로 폴란드와 발칸 반도까지 맑은 하늘과 평년 이상의 기온이 겨울 작물의 정착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최근의 강우가 중지된 것은 60일 총 강우량이 평년의 200%가 넘었던 폴란드 남서부에서 루마니아 서부까지에서 매우 유익하게 작용했다. 프랑스에서 스칸디나비아까지 가장 비정상적인 따뜻함이 확장된 반면, 발칸 서부에 국한해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았다. 주말에, 폭풍 전선과 그에 수반되는 한랭 전선으로 인해 포르투갈, 스페인 및 잉글랜드 서부에 중간 내지 심한 소나기 (10~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발생하여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에게 유리한 수분의 공급을 유지했다. 지속적인 따뜻함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더 추운 북부 및 동부 경작지에서 밀, 보리 및 유채가 휴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럽의 겨울 작물 전망은 여전히 양호했다.

■ 구소련(서부): 유익했던 최근의 강우 이후에 날씨가 다시 더 건조해졌고 점점 더 추워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늦은 주 강설 (1~10 mm 액체 등량)이 보고되었던 최북단 및 최동단 재배 지역에만 강수가 있었다. 그 외에 우크라이나 중부에서 러시아 서부와 남부에 이르는 주요 겨울 작물 지역은 건조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의 서부와 남부까지 주말에 있었던 심한 동결 (-9에서 -3° C)이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에게 휴면을 재촉하기는 했지만, 한 주의 평균 기온이 평년에 가깝거나 약간 높았다 (평년보다 최대 2° C 높음). 우크라이나 중부와 남부의 겨울 작물들은 가을 가뭄에서 크게 회복된 반면 겨울 밀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까지 양호하거나 불량한 모양으로 휴면에 들어갔다.

여기까지가 구소련 서부에 대한 마지막 주간 요약이다. 겨울 밀이 휴면에서 깨어나는 2021년 3월에 보도가 재개될 것이다.

■ 동아시아: 내용없음



■ 호주: 서호주에 광범위한 소나기 (10~2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계속되어 밀, 보리 및 캐놀라의 건조와 수확이 늦어졌다. 이 비가 작물의 품질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을 수 있다. 다른 곳에서는 호주 남부와 동부에 있는 밀 벨트에 산발적인 소나기 (5~20 mm)가 점점 내렸다. 그 소나기가 지역의 면화와 수수의 발아와 출현에 도움이 되었고 한편, 최소한으로 지체된 가운데서도 겨울 곡물과 유지 작물의 수확은 진전될 수 있었다. 서호주의 기온은 평년보다 2~4° C 낮았고, 남호주와 빅토리아는 평년보다 2~4° C 높았으며, 뉴 사우스 웨일즈와 퀸즐랜드 남부는 평년의 2° C 이내였다.

■ 아르헨티나: 남부와 서부의 농업 지역에 다시 소나기가 내려서 여름 작물의 발아와 겨울 곡류의 늦은 발달에 필요한 수분을 증가시켰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남중부에서부터 북쪽으로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전체로까지 내린 강우 총량은 10~50 mm였다; 포르모사와 그 주변에 비슷한 양의 강우가 기록되었지만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코리엔테스까지는 가벼운 비 (10 mm 미만)가 내렸다. 코르도바에서 그 수분은 특히 반가운 수분이었고 초기에 있었던 건조 기간 중에 현재 종실 비대 중인 곡류가 손상을 받았고 옥수수의 적기 파종을 방해했다. 그 지역의 많은 곳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2° C 높아서 라 팜파처럼 먼 남쪽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대 (섭씨) 중반까지 이르렀고 밤 최저 기온이 영도를 훨씬 웃돌았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는 11월 12일 현재 43% 파종되어 작년의 국가 수준보다 2 포인트 앞섰다. 해바라기 파종은 15 포인트 진전되면서 88% 완결되어 작년 (71%)보다 앞섰다. 그러나 면화의 파종은 작년의 42% 대비 22%에 불과했다.

■ 브라질: 브라질 중부 및 남동부 일부에 소나기가 다시 내렸지만 양호한 현재의 작물 전망을 유지하려면 지역 전체에 더 많은 비가 필요했다. 마토 그로소 서부 및 마토 그로소 남동부에서 미나스 제라이스 남부와 상 파울로 북부까지 내린 강우 총량은 10~50 mm였다. 하지만, 서쪽으로 마토 그로소 북동부까지 뻗어 있는 내륙 북동부 (토칸틴스, 바히아 서부 및 주변)는 다시 더 건조한 상태로 되돌아왔다. 따뜻한 여름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대 중반에 이름) 때문에 위에서 언급된 지역 전체에서 대두와 기타 여름 작물들의 수분 요구량은 높게 유지되었고 증발을 통한 높은 손실이 계속되었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11월 13일 현재 대두 파종이 거의 다 끝나서 (94%) 작년 수치 대비 불과 몇 포인트만 뒤쳐진 상태이고 5년 평균치보다는 약간 앞서 있었다. 한편, 마토 그로소 도 술과 상 파울로 남부에서부터 남쪽으로, 더 일찍부터 발달 중인 대두와 1차 작물 옥수수에 필요한 수분이 제한되어 있는 리오 그란데 도 술 전체로까지 소나기가 대체로 산발적이면서 가볍게 내렸다. 더 북쪽에 있는 농업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3° C 높았는데 더 따뜻한 곳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중간 및 높은 30도대에 도달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1월 9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95% 및 84% 파종되었고 각 작물의 일부가 생식기 중에 있었다; 밀의 수확은 거의 97% 완료되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11월 12일 현재 밀의 95%가 수확되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5년 평균보다 13 포인트 앞선 것이다. 한편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78% 및 31% 파종되었다.

